

카길에그리퓨리나

# 올해에도 국내 경주마산업 발전 위해 아낌없는 지원사격 나서

- 제2회 (주)카길에그리퓨리나 후원경주 개최하고 제1회 아시아 챌린지컵 후원경주 참여하다

2014년 8월 30일, 31일, 카길에그리퓨리나(대표이사:이보균)는 과천 '렛츠런 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 2회 (주)카길에그리퓨리나 후원경주를 개최하고 제1회 아시아 챌린지컵 후원경주에 참여하였다. 카길에그리퓨리나는 국내 경주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틀간 진행된 경주를 후원하였으며, 국내 경주마 산업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30일 진행된 제 2회 (주)카길에그리퓨리나 후원경주에서는 경기에서는 문정균 기수가 기승한 '슈퍼 플로잇'이 우승을 차지하였고 이보균 대표와 카길에그리퓨리나 임직원들이 수상자들에게 축하시상을 하였다. 카길에그리퓨리나 임직원들과 마사회 관계자들이 국내 경주마 산업의 동향에 대해 논의하며 발전 방향과 고객 만족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31일 열린 제1회 아시아 챌린지컵 후원경주는 한국경주마 역사상 최초의 국제초청경주로

올해는 싱가포르가 참가하게 되면서 기존 한일교류경주에서 아시아 챌린지컵으로 이름도 변경 하였다. 이번 경주는 참가국인 싱가포르에도 중계되었는

데, 이는 한국의 경주마산업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카길에그리퓨리나 말사로 담당 김양희 부장은 "카길에그리퓨리나는 앞으로도 국내 경주마 산업이 발전하여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8월 30일 개최된 제 2회 (주)카길에그리퓨리나 후원경주 기념사진



8월 31일 개최된 제 1회 아시아 챌린지컵 후원경주 기념사진

(주)명성

## 자주식베일러의 혁명! 돌풍의 주역! (주)명성의 HV1800

농·축산 기계의 선도기업인 (주)명성은 옥수수 수확용 신형자주식베일러 HV1800을 수년간의 필드TEST 및 내구성 TEST를 마치고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북, 충남, 경기도 순으로 전국을 순회 하면서 시연 행사를 통해 옥수수 작업현장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어 내고 있다.

고객이 직접 작업테스트를 하면서 그 우수성을 인정하였으며 올해 첫 판매를 시작으로 자주식 베일러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자주식베일러(HV1800)은 기존의 (주)명성의 자주식베일러에서 예취부만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신제품이다.

특히 본체프레임과 엔진을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일본 안마의 최신형 7조식 콤파인을 적용함으로써, 122마력의 강력한 엔진은 물론 원통형 캠퍼를 예취부로 사용하는데 있어 파워풀한 출력을 자랑한다.



자주식 베일러 제품

또한, 궤도식(크로울러) 바퀴와 고강도저중량 철판을 적용하여 습지작업조건에서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무게를 5톤으로 줄여 국내 원통형 캠퍼방식의 자주식 베일러중 가장 가벼운 제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확인시켜줌으로써 탄성을 자아냈다.



자주식 베일러 제품

그뿐만이 아니라 기체가 가볍고 출력이 강하다 보니 빠른속도로 작업이 가능하면서도 작물의 막힘이 없고 '스핀턴' 기능으로 그 자리 자체회전이 가능하여 좁은지역 사이사이를 손쉽게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 또한 큰 장점이었다.

이러한 장점들은 베일형성과 동시에 예취가 가능하도록 기계에 자동 컨베이어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성과 작업능률을 높이는데에 주력 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장점은 한국지형과 특색에 맞는 기계를 개발했다는 점과 소비자들에게 경쟁사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형 자주식베일러 HV1800을 출시했다는 점에서 (주)명성이 국내 자주식베일러 돌풍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주)명성

## 전북농업기술원과 (주)명성이 함께 사료작물 [착한식물 케나프 연시회] 실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과 (주)명성은 2014년 8월 28일 전북 남원시 사매면에서 사료작물 케나프 기계수확연시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농촌진흥청, 바이오매스 관련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강원대, 충남대, 축산농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케나프사료 작물에 대해 다양한 연구자료를 발표 했다. 오후에는 현장에서 이동하여 케나프 작물에 대한 소개와 엔실리지 전시 및 설명을 실시한 후 (주)명성의 자주식 베일러 HV1800 기종으로 수확 연시를 하였다.

이번에 연시에 사용한 제품인 (주)명성의 자주식 베일러 HV1800는 케나프의 논재배, 밭재배 어디 서나 작업이 가능하고, 수확과 동시에 베일성형 작업이 가능하여 엔실리지의 효율을 높여준다.

랩피복기는 RF1002 베일을 안전하게 상차하여 2암으로 신속하게 랩핑작업을 하게된다.

케나프식물은 서아프리카 원산으로 전세계적으로 300여종이 분포되어 기후, 토양에 대한 광범위한 적응성이 있다. → 적응성 예비검정 결과 생육 양호 : 지역 신소득 유망작물로 도입 가능(익산 및 새만금 지역) → 1960년대 일부 도입 시험이 있었으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다가 최근 품종육성 및 사료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다시 시작 케나프 사료작물 이영의 장점 → 특별한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용가능. 높은 경제적 유발효과 창출가능! 당면 현안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시의성 보유! → 우리나라 사료산업 시장규모[농후:77.7%, 조사료 23.2%] : 9조원 규모,

가축사육두수의 지속적 증가, 사료가격 급격한 상승 → 우수한 사료가치 보유 : 상대적 사료가치 200 (옥수수 130 / 청보리 98 / 볏짚 68)



선진

## 선진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김제 비육우 희망 콘서트 개최!

축산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은 지난 19일 전북 김제시에서 선진의 고객 농장을 포함한 전북, 충청 남북도, 경북 일부 비육우 농가 약 150여명이 참여한 비육우 '2014 행복한 동행 희망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진 사료 서부 BU장 김승규 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내 비육우 목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선진 마케팅팀 강정운 팀장은 2014년 한우 시장 전망과 선진의 '원더플 행복목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선진의 '원더플 행복목장'은 '1 THE +(플러스)'라는 의미로 1+ 등급 출현율 60% 이상의 행복 목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선진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국 한우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한우 지킴이가 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두 번째로 선진 기술연구소 김민국 박사의 '비육우 생리 및 선진 프로그램' 발표가 이어졌다. 김민국 박사는 전국 목장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1+ 등급의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반추위 안정성을 기반으로 육량과 육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 비육우 사료 프로그램 및 사양관리 컨설팅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선진 김권태 지역부장은 2014년 01월 ~ 08월까지 선진 고객 목장 출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증 자료를 통해 선진 비육우 사료의 우수성에 대해 알렸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우수 출하 성적 목장주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고급육 사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목장주는 "선진 사료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선진의 '원더플 행복목장'의 취지에 충분히 동감한다. 향후에도 이런 행사를 더 자주 열으면 한다"고 행사 참여 소감을 전했다.

향후 선진에서는 '원더플 행복목장'을 위해 목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원더플 행복목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